

Dec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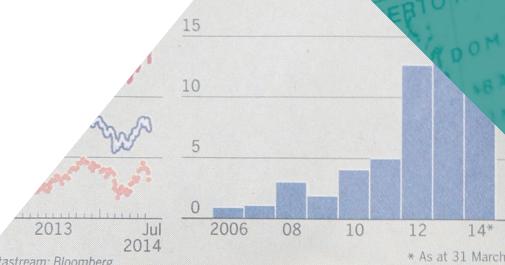
Hana Market Monthly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연구원 박정은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Datastream: Bloomberg

* As at 31 March

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d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n 17 times). About \$14bn is coming due this year, \$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says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JPMorgan estimates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erty's best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목 차

금리	03
달러/원 환율	05
엔/원 환율	07
유로/원 환율	08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These tw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d and a fourth fact: these
trade below book value
times Rosneft's in
is reserves (Exxon
es). About \$14bn is
due this year, \$11bn.
Rosneft may pay it
ing to sell its oil --
. Sanctions still allow
to US dollar clearing.

ance of ITV in the next six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of ITV would cost £7.4bn at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terest, tax depreciation and
ation. But without a bigger
liberty will be a watcher of
content, rather than a
ant in it.

Profit schools

g is business in the US.
trill dollars is spent each
on secondary education.
ness of listed, for-profit,
ry schools is not so hot.
the class in this niche is
n Colleges, which is selling
ng nearly all its campuses
g sanctions from the
ent of Education.
epartment has been cracking
for-profits following a 2012
sional review that found half
nts drop out and one-fifth



금리

11월 동향 바이든 승리 이후 재정합의 기대, 백신 개발 호재 및 대내적 금통위 매파적 스탠스 등에 따라 상승 흐름을 보임

초반 미 대선 불확실성과 이에 연동한 재정합의 이슈에 따른 미국채 수익률 등락 영향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양상

- 11월초, 미 대선 불확실성 이슈에 따른 미국채금리 등락에 연동 출발 후, 바이든 승리 가능성 점증과 백신 개발 관련 호재 등으로 상승 전환

- 11월 초반, 미 대선 불확실성 커진 가운데 수급상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출발 후 미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경계감 속 보합 흐름 시현
- 이어 미 대선 블루웨이브 무산 속 미국채 발행 축소 가능성 등으로 국고채금리도 큰 폭 하락 후, 바이든 승리 점증에 의한 재정합의 기대와 백신 개발 이슈에 재차 상승 전환

중반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 우려, 백신개발 불확실성 증폭, 국내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수급 등이 상존하며 등락 반복

- 중반, 코로나 국내 재확산 우려와 미국채금리 급락 영향 반영된 가운데 백신 개발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후 국내 수급 반영 속 상승 전환 시현

- 대외적 코로나 확산 외에 국내에서도 재확산 속 거리두기 상향 움직임 등 우려감 커지는 가운데 미 국채금리 급락 반영과 백신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 이후, 국내외 코로나 확산에 하락 영향 이어지다 수급상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후 등락 시현

후반, 국내 코로나 3차 확산 속 금통위의 매파적 영향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다 수급상 국고채 매입 이슈 등이 상단 제한

- 후반, 대내적 거리 두기 강화 등 코로나 확산에 위험회피 강화 영향 반영 후 금통위 매파적 스탠스에 상승전환하다 한은 국고채 매입 이슈 등에 따른 수급 영향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

- 11월 후반,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위험회피 요인 반영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여기에 금통위의 금리동결 속 성장 전망 상향과 매파적 스탠스 등으로 상승세 보였으나, 한은의 국고채 매입 이슈 등에 따른 수급 개선 속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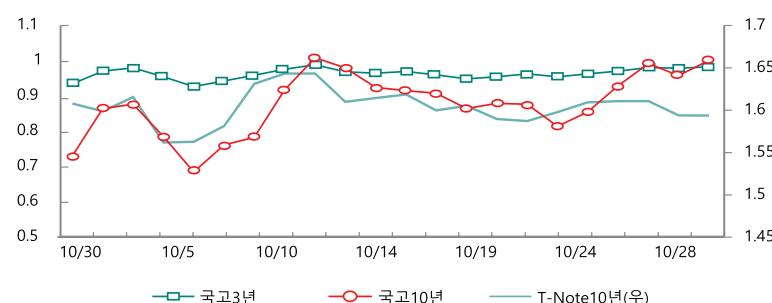
11월 평균

국고채(3년): 0.96%

국고채(10년): 1.61%

T-Note(10년): 0.97%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12월
전망

미 대선 후 의회 재정부양 합의 가능성, 백신 성과 기대와 대내적 성장전망 상향 등으로 위험선호 영향 우위를 보일 전망

평균	2020. 1Q	2020.2Q	2020.3Q	2020. 4Q ^F
국고채(3y, %)	1.09	0.92	0.85	0.95

- 미 대선 후 재정합의 가능성에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 개발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코로나의 국내외 확산세에도 위험자산 성향이 높아질 전망

- 미 대선 바이든 승리 확정 이후 의회의 재정합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옐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선임 이슈 등이 위험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백신개발에 대한 성과가 점차적으로 가시화하는 영향도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최근 국내외 코로나 대유행 우려 등이 그 영향을 제한할 전망

미 바이든 신정부에서의 재정합의 기대, 백신 개발 가시화 등이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내 코로나 대유행 지속하는 가운데 연준 의장의 경제 전망 경로 불확실성 언급과 최근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연준 장기물 매입 확대 가능성 등이 미국채금리 하락을 통해 국고채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미 연준의장이 코로나 백신의 기대가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은 위험선호를 제한할 전망
- 여기에 최근 미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연준의 장기국채 매입 확대 가능성과 미 국채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그 영향을 받을 전망

미 연준의장의 장기 경제전망 불확실성 및 백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 언급 등은 위험선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한은의 국내 성장 전망 상향 조정 속 수출경기 개선, 외국인 자금 유입 등에 따른 위험선호는 대내적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11월 국고채(3년) 금리는 0.90%~1.05% 예상

- 한은의 국내 성장 전망 0.2%p 상향 속 수출 경기 개선 등이 국고채금리 상승 요인이나, 국내 코로나 대유행 지속 가능성 등이 그 영향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대외적 달러 약세 속에 원화강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강화 등에 따른 위험선호의 대내적 요인도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대선 승리 확정 후 의회 경기부양책 합의 가능성 증대 · 백신 상용화 기대 · 국내 성장을 상향 · 원화 강세 유지에 따른 위험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미 경제 성장경로 불확실성 시사 · 국내외 코로나 대유행 지속



달러/원 환율

11월 동향 미 대선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며 미 재정합의 기대, 백신 상용화 기대, 국내 외국인 원화강세 배팅 강화 등으로 큰 폭 하락

월 초, 미 대선 경계감에 도 바이든 승리 가능성과 백신개발 소식 등이 위험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1,100원대 진입

중반, 뉴욕증시의 과열 우려와 과도한 백신 기대 경계, 외환당국 시장 안정 의지 등으로 1,110원대 중반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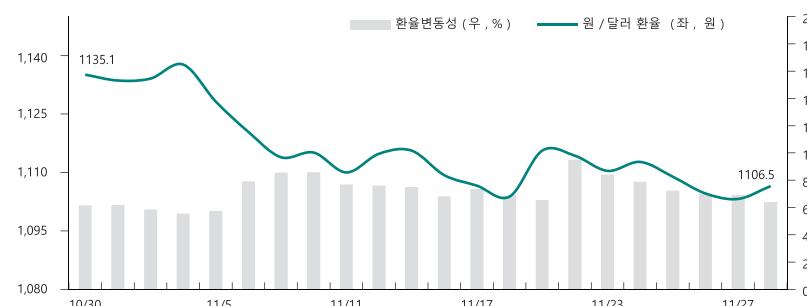
후반,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강세 투자 유인 강화 이어지며 중공업 수급 호조, 미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1,100원대 안착

- 월 초, 미 대선 경계감에 1,130원대 초반 움직임 보인 후, 바이든 후보 승리 가능성 높아짐에 따른 재정합의 기대와 백신개발 소식 등으로 1,100원대 진입
 - 11월 초, 미 대선 불확실성에 1,130원대까지 상승하던 환율은 바이든 승리 가능성 높아짐에 따른 미 재정합의 기대감 증대 반영 등에 따라 1,120원대로 하락
 - 여기에, 화이자사의 백신 임상 성공 소식도 위험선호 요인으로 작용
- 중반, 원화강세 배팅 외국인 국내 유가증권 순매수 속 하락지속 후, 뉴욕증시 과열 우려, 과도한 백신 기대 우려와 당국 경계감 등으로 1,110원대 중반 회복
 - 11월 중반,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강세 외국인 배팅 움직임이 유가증권 순매수로 이어지며 환율 하락 압력을 높이는 양상
 - 그러나 뉴욕증시 과열 우려 등이 위험 회피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백신 개발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대한 경계와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 등으로 1,110원대 회복
- 11월 후반, 외국인 투자자 원화강세 투자 유인 강화가 이어진 가운데 중공업 대형 수주, 미 대선 관련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1,100원대 안착 시현
 - 11월 후반, 글로벌 금융시장 상승 등 위험 선호 지속에 국내 원화 강세 유인 외국인 자금 유입 이어진 가운데 중공업 대형 수주 등 수급 개선 등으로 1,100원대 진입
 - 이어, 달러 약세 흐름 속 국내외 금융시장 상승 등 위험선호 영향 이어지며 1,100원대 중반 흐름 속 마감

11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15.2원

11월말 달러/원 환율
: 1,106.5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하나은행

**12월
전망**

바이든 승리 확정 후 재정합의 기대, 옐런 등판, 국내 수출 경기 호조 등이 원화 강세 요인이나, 국내외 코로나 확산 우려 속 경기전망 불확실성 등은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2020. 1Q	2020. 2Q	2020. 3Q	2020. 4Q ^F
달러/원 환율(원)	1,195	1,220	1,188	1,120

- 미 대선 바이든 승리에 따른 안정적 정권이양 속 재정정책 기대와 미 경제를 구하기 위해 등판한 옐런 전 연준의장에 대한 기대 등이 달러 약세 반영할 전망
 - 미 대선에서 바이든 승리 후 안정적 정권이양 전망 속에 미 의회 경기부양책 수정안 합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이 달러 약세를 견인할 전망
 -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장관으로 옐런 전 연준의장이 선임된 것도 시장에 위험선호 심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백신 효능 기대 등이 달러 약세를 견인하겠지만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고, 파월 의장의 과도한 백신 기대 경계 시사와 대규모 자금 공급에도 여전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달러 강세 견인 요인으로 판단
 - 최근 화이자, 모더나사 등의 백신 개발 후 공급 기대 등이 위험선호 요인이나 여전히 국내외 코로나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측면이 달러 약세를 제한할 전망
 - 반면, 연준의장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 소식에도 여전히 도전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을 천명한 가운데 향후 경제전망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밝힘에 따른 실물경기 충격 상존 여부 등이 안전자산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
- 하반기 국내 수출경기 개선, 외국인 투자자 원화강세 배팅 심리 등 대내적 원화강세 유인이 높아진 형국. 다만 외환당국의 경계감 강화 가능성 등을 하단 지지 요인으로 판단
 - 대내적으로도 하반기 수출 경기 호조 속 한은의 성장을 상향,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강세 기대심리 강화에 따른 자금 유입세 등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그러나 빠른 환율 하락에 대한 국내 경제 회복력 약화를 우려하는 외환 당국의 경계심리가 크게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은 환율 하락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위험 회피 강화 가능성 ·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의 되돌림 (부작용 증폭 시) ·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대선 바이든 승리 후 안정적 정권 이양 가능성 속 재정합의 기대 확대 · 원화강세 외국인 자금 유입 유인 강화

미 대선 바이든 승리 확정에 따른 의회 재정합의 기대와 옐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취임에 따른 미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기대

코로나 확산 속 백신 기대가 위험선호 요인이나 여전한 미국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우려 등을 달러 강세 전환 요인

12월 달러/원 환율 레인저는 1,110원~1,090원



엔/원 환율

11월 달러/엔 환율은 일본 이슈 부재 속 바이든 당선에 따른 달러 약세 지속 영향으로 하락 시현. 엔/원 환율도 미국 대선 이후 원화 강세 강화됨에 따라 하락

엔/원 환율 전월대비 18.5원 하락한 1,063.2 원에 마감

- 엔/원 환율은 미국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높은 수준 유지했으나 바이든 당선 확정 이후 원화 강세 강화되며 하방압력 높였음
 - 월 초, 미국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에 무게가 실리면서 안전자산선호 강화된 영향으로 엔/원 환율 상승했으나 이후 바이든 승리 관측에 하락 시현
 - 월 중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엔/원 환율 상승하는 듯 했으나 백신 기대감이 환율 하락 견인
 - 월 후반, 옐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내정,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승복 시사 등에 위험선호 강화되며 환율 하방압력 높임

12월 달러/엔 환율은 달러 약세 지속 전망에 하락 예상. 엔/원 환율도 위험선호 강화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달러/엔 환율 제한된 하락 전망

- 달러약세 지속 전망에 따른 달러/엔의 제한적 하락 예상
 - 미국 정권 이양 작업이 진행되면서 추가 부양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달러 약세 흐름이 1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달러/엔 환율 하락 전망
 - 다만, 미국의 추가 경제대책 실현은 향후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으로 이어져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글로벌 위험선호와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이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매력도를 낮추는 점도 환율 하락 제한요인

엔/원 환율은 하락 우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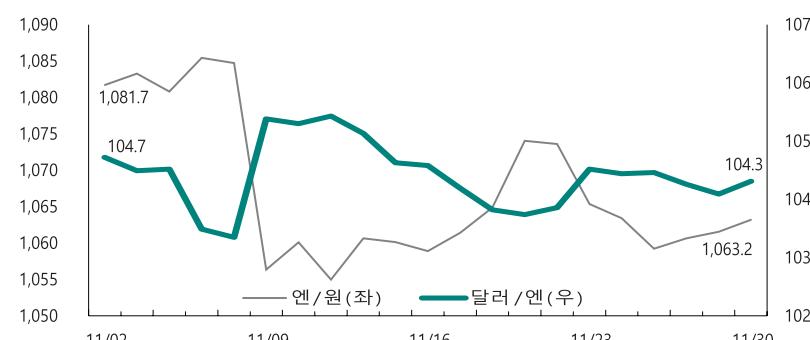
- 엔/원 환율은 원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 전망
 - 원화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엔/원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바이든 당선 이후 추가 경기 부양,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 등이 위험선호를 강화시킴에 따라 환율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이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

1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4.4엔

11월 엔/원 평균환율 : 1,067.4원

12월 엔/원 예상 범위 : 1,020~1,07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11월 유로/달러는 달러 약세에 따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 1.20달러에 육박하며 마감. 동향 유로/원은 양국 통화가 모두 강세 시현함에 따라 1,320원 전후에서 변동

- 유로/원 환율은 전반적인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가 더해짐에 따라 양국 통화의 강세폭에 따라 상승과 하락 반복
 - 월 초, 바이든 당선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출시 기대가 유로화 강세를 견인함에 따라 유로/원 환율은 상승압력으로 작용
 - 월 중반, 위안화에 연동된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금리 오름세, 브렉시트 협상 난항 등에 따른 유로화 조정이 환율 하락 견인
 - 월 후반, 미국의 정권 이행 작업 개시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 등에 유로화 강세 강화됨에 따라 환율 상승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3.3원 상승한 1,323.5원
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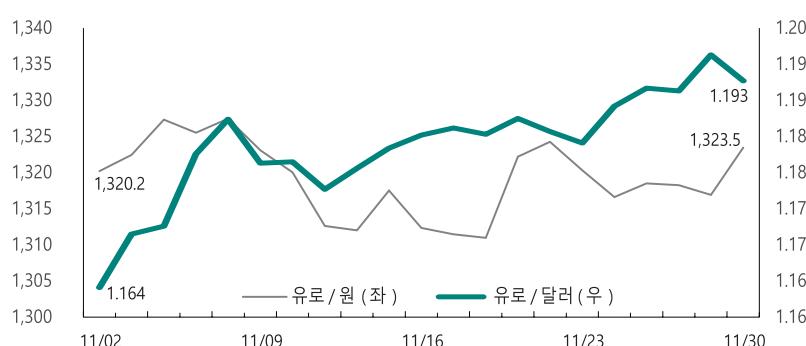
12월 유로/달러 및 유로/원 환율은 유로화의 가파른 강세에 따른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리스크, 1.2달러의 심리적 상단 상회 부담 등이 상승을 제한할 전망

- 글로벌 위험선호 속 달러 약세가 유로/달러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미국 추가 재정 정책 실현 가능성, 중국 제조업 경기 호조 등 글로벌 위험선호에 따른 달러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로/달러 환율은 상승압력을 높일 전망
 - 다만, 12월 말 브렉시트 전환 종료 시점을 앞두고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 확대될 가능성, 가파르게 상승한 유로화에 대한 부담 등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 유로/원 환율은 가파른 유로화 강세에 따른 소폭 상승 전망
 - 유로화의 가파른 강세에 따른 유로/원 환율 상승이 예상되나 브렉시트 리스크, 유로/달러 환율의 심리적 상단 상회 부담, 중국 경기 호조 속 위안화 강세에 연동된 원화 등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유로/달러 환율 제한적
상승 전망

유로/원 환율 상승 우위
예상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1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837

1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19.2

12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310원~1,35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0.12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豪 RBA	2	3 2021학년도 수능(10시 개장)	4	5
		한 11월 수출수입(-38%~58% YoY) 11월 무역수지(\$5,825M) 3Q GDP[F] 11월 Markit PMI 제조업(51.2) 일 11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F] 중 11월 Caixin 제조업 PM(53.6) 호 RBA 기준금리(0.1%) 유 11월 Markit 제조업 PM(53.6) 미 11월 ISM 제조업지수(59.3) 11월 ISM New Orders(67.9) 11월 ISM 고용(53.2), ISM 구매물가(65.5)	한 11월 CPI(-0.6% MoM, 0.1% YoY) 일 11월 분원통화·소비자 대지수(Y3Q) 유 10월 PPI(0.3% MoM, -2.4% YoY) Fed Releases Beige Book	한 11월 외환보유고(\$426.51b) 일 11월 지분은행 PM 종합/서비스[F] 중 11월 Caixin 종합 PM(55.7) 11월 Caixin 서비스 PM(56.8) 독 11월 Markit 서비스/종합PMI 유 11월 Markit 서비스/종합PM(41.3/45.1) 10월 소매판매(-2.0% MoM, 22% YoY) 미 11월 ISM 비제조업지수(66.6) 11월 Markit 종합/서비스PMI	한 10월 BOP 경상수지·상품수지 독 10월 공장수주(0.5% MoM, -(9% YoY)) 미 10월 무역수지(\$-63.9b) 10월 내구재 주문·제조업 수주(0% YoY) 11월 실업률, 시간당 평균임금 11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6	7	8	9	10 ECB 통화정책회의, EU 정상회의	11	12
		중 11월 외환보유고(\$3,127.98b) 11월 무역수지(\$58,44b) 11월 수출/수입(+1.4%/-4.7%, YoY) 독 10월 산업생산(-8% MoM, -7.3% YoY)	일 3Q GDP 10월 가계 소비지출(-10.2% YoY) 10월 BOP 경상수지 유 12월 ZEW 서비스 예상(32.8) 3Q GDP[F], 고용[F] 미 3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지수	일 10월 핵심기계수주(-4.4% MoM) 중 11월 CPI/PPI(0.5%~-2.1%, YoY) 독 10월 무역수지/경상수지	중 11월 외국인 직접투자(-8.3%) 일 11월 PPI(-0.2% MoM, -2.1% YoY) 유 ECB 기준금리(0.00%) 미 11월 CPI(0.0% MoM, 1.2% YoY)	
13	14 미국 선거인단 투표	15 美 FOMC(~16)	16	17 BOE, BOJ 통화정책회의(~18)	18	19
		일 10월 설비기기동률(6.4% MoM) 10월 광공업생산[3차 산업]수 유 10월 산업생산(-0.4% MoM, -6.8% YoY)	한 10월 통화공급 11월 금통위 의사록·공개 중 11월 산업생산(6.9% YoY) 11월 소매판매(4.3% YoY) 미 11월 수출/수입률(+0.2%~-0.1% MoM) 11월 수출/수입률(+0.4%~-10%, YoY) 11월 설비기기동률, 광공업생산	한 11월 실업률(4.2%) 11월 수출물가/지수 (-2.6% MoM, -6.4% YoY) 11월 수입물가/지수 (-2.6% MoM, -11.6% YoY) 일 11월 수출/수입 (-0.2%~-13.3%, YoY), 무역수지 유 10월 무역수지 미 FED 기준금리(0.0~0.25%) 미 10월 기업재고(0.7%), 11월 소매판매 Powell Holds Post-FOMC Press Conference	영 BOE 기준금리(0.1%) 유 10월 건설생산(-3% MoM, -23% YoY) 11월 CPI[F] 미 11월 주택착공건수(4.9% MoM) 11월 건축허가(0.0% MoM) 12월 컨捺스사이트 제조업 활동 12월 필리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26.3)	일 BOJ 기준금리(-0.10%) 11월 전국 CPI(-0.4% YoY) 독 11월 PPI(0.1% MoM, -0.7% YoY) 12월 IFO 기업환경지수 유 10월 경상수지(25.2b) 미 11월 선행지수(0.7%)
20	21	22	23	24	25	26
		한 12월 수출입 20일(전년 대비) 미 11월 사카고·연방 국기활동 자수(0.83)	한 11월 PPI(-0.6% YoY) 독 1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 미 3Q GDP 11월 기준 주택매매(4.3% MoM) 12월 리츠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일 10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10월 BOJ 금정위 의사록·공개 미 1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신규주택매매 11월 PCE 디플레이터	일 11월 PPI 서비스(-0.6% YoY) 미 11월 내구재 주문, 지분재 수주	일 11월 실업률 12월 도쿄 CPI 11월 건설수주, 주택착공건수, 소매판매
27	28	29	30 2020년도 한국증시 폐장일	31 브렉시트 유예기간 종료		
		일 11월 광공업생산 미 12월 멀리스 연준 제조업 활동	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97.9)	한 1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1월 광공업생산 1월 경기순환형 산정지수 변동 미 11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미결주택매매 12월 MNI 시카고PMI	한 12월 CPI 중 12월 종합/제조업/비제조업PMI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안은 이전치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TEL 729-0190)로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 (www.kebhana.com → 외환포털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